

대홍콩시장 한국산 식재료 수출확대방안

□ 한국산 식재료 사용확대의 문제점

- 한국산 육류는 구제역, AI 등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안정적인 공급 지난
 - 쇠고기 : 한국과 홍콩간 수출입품목 허용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현재 정식통관으로 들여오지 못하는 상태임.
 - 돼지고기 : 금년도 4월9일부로 수출이 전면 재개되어 수입이 가능하나, 중국, 미국, 브라질, 덴마크 등 타국에서 수입되는 돈육에 비해 가격경쟁력에 있어 열위
 - 닭고기 : 금년도 한국내 AI발생으로 인해 수출금지 조치로 생닭과 계란 등 전면 수출 중단
- 한국산 일부 채소를 제외한 신선류 식재료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 사용
 - 수익구조상 한식당에서 한국산 식재료를 장기적 대량수입 불가
 - 일부 한식당은 한국산 식재료 사용의향은 있으나, 수입단가 및 수요 불안정으로 인해 지속적인 식재료 공급확대 지난
 - 가공식품을 제외한 신선식재료는 컨테이너 베이스 수입을 위한 규모화가 어려워 현재 타 품목과 혼적으로 수입중

□ 한국산 식재료 수출확대방안

- K-Pop, K-Drama 인기와 더불어 한식 및 식재료 소비확대를 위한 한식프로그램 제작홍보 확대 필요
 - Tasty Road 등 다양한 한식 및 한국 농식품에 대한 TV프로그램 제작·홍보를 통해 현지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한식소비 확대 지원
- 한류붐과 식문화의 급속한 전파에 따른 한식당 및 프랜차이즈 전문점 확대로 식재료 수출확대 및 전문컨설팅 지원 필요
 - 한국드라마 인기에 편승한 구이·치킨전문점 등 해외 프랜차이즈 확산에 따른 벌크용 식재료 수출지원 및 업종별 전문컨설팅 수요 증가
- 현지 소비자의 소득수준, 연령층에 맞는 고급, 중급, 중저가의 한식당 확대를 위한 전문조리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필요
 - 한식조리의 까다로움과 조리간편화의 어려움으로 전문한식 조리인력 부족